Pacific 231

- □□

정보

Arthur Honegger: Pacific

231, H.53

개요
곡명: Pacific 231, H.53. 대체 제목은 Mouvement symphonique No. 1
작곡가: Arthur Honegger (1892-1955)
작곡 시기: 1923년
장르: 관현악을 위한 교향적 운동, 단악장 교향시
헌정: Ernest Ansermet
초연: 1924년 5월 8일, 파리 Opéra, Opéra Orchestra 연주, Serge Koussevitzky 지휘
초판: 1924년, 파리 Maurice Sénart. 이후 Salabert 재인쇄와 소형 총보가 유통되었다 .
구조: 한 악장 안에서 정지, 출발, 가속, 최고 속도, 감속과 정지로 이어지는 다섯 기능적 구간. 다섯 구간을 독립 악장으로 세지 않는다.
소요 시간: 약 6-7분

IMSLP: Pacific 231, H.53 (Honegger, Arthur)

Wikipedia: Pacific 231

Arthur Honegger의 Pacific 231은 기관차의 음향을 흉내 내는 효과음 모음이 아니라, 관현악으로 거대한 물체의 운동을 설계한 단악장 교향시다. 낮은 음역의 압력이 정지 상태를 만들고, 짧아지는 음가와 악기군의
겹침이 출발과 가속을 만든 뒤, 최고 운동을 지나 무거운 화음과 긴 음가가 다시 기계를 세운다. 이 여정은 정지 , 출발, 가속, 최고 속도, 감속과 정지의 순서로 한 번에 이어진다.

작곡과 제목

Honegger는 처음에 이 곡을 Mouvement symphonique라고 불렀다. 완성 뒤에는 이 이름이 음악의 색채를 충분히 드러내지 못한다고 생각해 Pacific 231이라는 제목을 택했다는 회고가 전한다. Pacific 은 태평양이나 특정 기관차의 이름이 아니다. 미국식 Whyte 표기로 4-6-2에 해당하는 기관차 유형을 프랑스식 차축 표기 2-3-1로 센 이름이다. 앞의 유도 차축, 가운데 구동 차축, 뒤의 종동 차축을 숫자로 나타낸다.

제목이 구체적인 기계를 가리키지만 , Honegger가 음악으로 옮긴 것은 기차 한 대의 소음이 아니라 무게와 속도, 힘이 생기고 사라지는 물리적 과정이다. American Symphony Orchestra가 소개한 작곡가의 후대 설명에서도 리듬은 수학적으로 빨라지는 인상을 주는 반면 실제 운동은 느려진다고 한다. 따라서 곡을 단순한 기차 묘사나 템포 상승으로 요약하면 제목이 음악에 작용하는 방식을 놓치게 된다.

Ernest Ansermet 헌정은 IMSLP와 도서관 서지에 기록되어 있다. 초연 지휘자는 Serge Koussevitzky 였으므로 헌정 대상과 최초 연주자를 한 사람으로 합치지 않는다. 프랑스 철도 도서관이 소개한 Harry Halbreich의 연구는 1922년 Abel Gance의 영화 La Roue를 위한 음악 조각과 이 작품의 선행 발상을 연결하지만 , 이는 자필 악보의 직접 대조가 필요한 후대 연구 가설이다. 곡의 확정된 작곡 연도는 1923년으로 둔다.

초연과 출판

IMSLP의 작품 서지와 공연 기록은 1924년 5월 8일 파리 Opéra에서 Opéra Orchestra가 Koussevitzky의 지휘로 세계 초연을 했다고 적는다. 당시의 공연은 Concerts Koussevitzky라는 이름으로 알려졌으며 , 로컬 원고의 초연 정보와도 일치한다.

Morgan Library가 보존한 실물은 Pacific 231 : mouvement symphonique / A. Honegger 라는 표제의 1924 년경 초판이다. 출판사는 Paris의 Editions M. Senart로 기록되어 있다. Basel University Library의 총보는 같은 계열을 Paris Salabert [1924]로 기술하고, IMSLP는 1924년 Sénart 초판, 1931년 Wiener Philharmonischer Verlag의 소형 재각인, 1992년 Salabert 재인쇄를 구분한다. 이 표기 차이는 서로 다른 작품을 뜻하지 않고 판형과 재출판 경로의 차이를 보여 준다.

소요 시간

평균 연주 시간은 6-7분이다. 개별 녹음에는 6분 안팎의 길이 차이가 있지만, 짧은 작품인 만큼 몇 초의 템포 차이도 출발과 정지의 인상을 크게 바꾼다. 다섯 구간을 독립된 악장처럼 끊지 않고 하나의 호흡으로
연결하는지가 시간감에 더 큰 영향을 준다.

편성

피아노나 하프 없이 다음 관현악을 사용한다.

목관: 피콜로, 플루트 2, 오보에 2, 잉글리시 호른, 클라리넷 2, 베이스 클라리넷, 바순 2,
콘트라바순 .
금관: 호른 4, 트럼펫 3, 트롬본 3, 튜바.
타악기: 테너드럼, 심벌즈, 큰북, 탐탐.
현악: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더블베이스로 이루어진 현악 5부.

IMSLP는 목관의 겸주 악기와 금관, 네 종류의 타악기, 현악을 32파트로 열거한다. Kalmus 대여판의 축약 표기는 타악 파트를 세 명 또는 네 명이 나누어 맡을 수 있음을 덧붙인다. 저음 목관과 금관, 현악 저음이 무게를 만들고, 짧은 현악 음형과 타악의 충격이 운동의 압력을 보탠다.

한 악장 안의 다섯 구간

정지에서 출발로

도입부는 낮은 음역의 무게와 느린 호흡으로 아직 움직이지 않는 기계를 보여 준다. 현악의 짧은 반복과 관악의 긴 음이 서로 다른 시간 단위를 만들며, 물체가 곧 움직일 것 같은 압력을 쌓는다. 이때 들리는 무게는 특정한 기적음의 복사가 아니라, 낮은 음역과 악기 배치가 만드는 물리적 감각이다.

출발이 시작되면 짧은 동기가 저음에서 되풀이되고 , 다른 악기군이 그 동기를 받아 움직임을 연장한다. 악기가 한꺼번에 큰 소리를 내기보다 작은 추진이 누적되므로 , 청자는 정지와 운동의 경계가 조금씩 흐려지는 순간을 듣게 된다.

가속과 운동의 축적

가속 구간의 핵심은 빠른 템포 지시보다 음가의 세분과 동기의 겹침이다. MusicWeb International의 분석처럼 이미 나온 주제가 더 짧은 음가로 되돌아오고 새로운 선 위에 포개지면서 , 같은 시간 안에 더 많은 움직임이 들어오는 듯한 착시가 생긴다. 기본 박동이 완전히 달라지지 않아도 리듬 밀도가 커지므로 속도와 중량을 함께 느낄 수 있다.

베이스 클라리넷의 어두운 소리, 호른과 트럼펫의 교대, 현악의 불규칙한 피치카토는 서로 다른 기계 부품을 일대일로 묘사하는 기호가 아니다. 저음의 지속과 짧은 음형의 충돌이 운동 에너지를 한 덩어리로 만들고, 금관은 그 덩어리를 넓은 공간으로 확장한다.

최고 속도

최고 운동에 이르면 목관, 금관, 현악, 타악이 동시에 촘촘해진다 . American Symphony Orchestra의
프로그램 노트는 베이스 클라리넷의 외침, 호른과 트럼펫의 교대, 전쟁을 연상시키는 드럼과 불규칙한
피치카토를 이 구간의 공격적 에너지로 묘사한다. 이 비평적 이미지는 악기의 실제 등장을 바탕으로 하지만, 작품이 전쟁 장면을 표제로 삼는다는 뜻은 아니다.

관현악은 거대한 음량을 오래 유지하기보다 여러 짧은 선을 맞물려 밀어붙인다 . 그래서 최고 속도는 단순한 큰 소리의 절정이 아니라, 각 악기군의 운동이 동시에 겹치는 밀도의 절정이다. 이 순간에 Pacific 231 이라는 제목은 기관차의 외관보다 힘이 최고점에 도달한 상태를 가리키게 된다.

감속과 정지

정점 뒤에는 음가가 다시 길어지고 무거운 화음이 앞선 반복을 눌러 놓는다. MusicWeb의 해설은 빠른 기계가 결국 중량을 되찾으며 멈추는 과정으로 이 결말을 설명한다. Honegger의 작곡가 발언에서 말한 ‘리듬은
가속되지만 운동은 느려진다 ’는 역설도 이 구간에서 선명해진다 . 음악은 갑자기 끊기기보다 축적된 에너지를

압축하며 정지한다.

기계음악과 추상적 운동
1920년대에는 도시와 기계의 속도를 음악에 넣으려는 시도가 늘었다. American Symphony Orchestra는 Pacific 231을 그 짧은 시대적 관심을 대표하는 작품으로 소개하고, Honegger의 Rugby와 뒤의 제목 없는 Mouvement symphonique No. 3를 같은 연작의 다른 방향으로 놓는다. 그러나 이 시대 맥락이 곡의 의미를 하나로 고정하지는 않는다.

Honegger는 표준 관현악으로도 인간의 노래와 다른 비인간적 결합을 만들 수 있음을 보여 준다. 피아노나 하프가 빠진 편성, 낮은 목관과 금관의 압력, 반복되는 현악, 금속성 타악이 그 역할을 나눈다. 실제 증기나 경적을 녹음한 음악이 아니므로 청취자는 소리의 닮은꼴보다 리듬의 조직과 음향의 밀도 변화에 귀를
기울이는 편이 좋다.

이 작품은 세 개의 Mouvements symphoniques 가운데 첫 곡이다. 두 번째 곡 Rugby는 스포츠의 충돌과
방향 전환을 다루고, 세 번째 곡은 제목을 붙이지 않은 채 절대음악 쪽으로 나아가려는 Honegger의 태도를 보여 준다는 해설이 있다. 이 연작의 위치는 Pacific 231이 단순한 기차 그림이 아니라, 운동을 추상화하려는 작곡가의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

판본과 수용
1924년 Sénart 대형 총보와 소형 총보, 1931년 비엔나 재각인, 1992년 Salabert 재인쇄, Kalmus 현대 대여판은 서로 다른 서지 단계다. IMSLP의 대형 총보에는 1928년 인쇄본이라는 편집 메모가 붙어 있으므로, 초판 발행 연도와 실제 스캔 인쇄 시기를 구분한다. 편곡된 피아노 네 손 판은 원작 관현악 총보와 별도의 매체다.

작품의 차축 제목은 청중에게 즉각적인 이미지를 주지만, 그만큼 음악을 기차 소리로만 환원하기도 쉽다. 초연과 초판의 기록은 작품의 역사적 출발점을 알려 주고, Honegger의 후대 설명과 리듬 분석은 그 이미지가 어떻게 추상적 운동으로 바뀌는지 설명한다. 연주를 들을 때에는 다섯 구간의 경계가 어디에서 느껴지는지 , 리듬의 세분이 실제 템포 변화 없이도 속도를 만들 수 있는지, 마지막 감속이 급정지보다 압축된 해소로 들리는지를 차례로 살피면 좋다.

주요 자료

IMSLP, Pacific 231, H.53

The Morgan Library & Museum, 1924년경 Sénart 초판 소장 기록

Basel University Library Swisscollections, Pacific 231 총보 기록

Alfred Music/Kalmus, Pacific 231, H.53 편성 안내

American Symphony Orchestra, Pacific 231 프로그램 노트

- MusicWeb International, Paul Serotsky □□
- BiblioLMC, *Pacific 231* □□ □□
- □□□ □□ □□□ , Honegger□ *La Roue* □□ □□